

# 미 하원의장에 공화당 매카시 의원

### 초강경파 의원 모임 요구 수용 15번째 투표 끝에 간신히 당선 바이든 정부 견제 본격화

미국 신임 하원 수장에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공화당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데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공화당 내 초강경파 의원 모임들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대어 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5번 투표 끝에...하원 의사봉 집 매카시=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5대에 걸쳐 15차례 투표된 끝에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미국 하원은 의회 공전 4일째인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제118대 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 자정을 넘긴 7일 새벽 당선자를 확정했다.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은 이날 새벽 15차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민주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21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435석(현재 1석 공석)인 미 하원 과반 의석수는 218석이다. 공화당 의원 222명 중 5명만 이탈해도 공식 선출되는데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개원 전부터 5명을 훌쩍 넘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비치

며 난항이 예상됐고 실제 14차례에 걸쳐 선출이 불발됐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12번째 투표에서는 213표를, 13번째 투표에서는 한 표 더 늘어난 214표를 얻는 데 그쳤다. 14번째 투표에서는 216표를 얻었지만 과반에 한 표가 미치지 못했다.

미국 하원 의장 선출 방식의 경우 하원 의원들이 차례로 지지 후보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데, 출석한 의원이 자신의 차례가 오면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석'(present)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재석'은 공식, 결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표에 포함되지 않아 과반의 문턱을 낮춘다.

14차 투표 마지막 매카시 하원의장이 당내 강경파의 핵심 인물 로렌 보버트와 맷 게이츠 의원이 앉은 자리에 걸터앉으며, 이들 사이에 심각한 표정의 대화와 샷대질이 오가는 모습도 언론에 노출됐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결국 15번째 투표에서도 216표를 얻었지만, 아무도 뽑지 않고 '재석'(present)으로 투표를 보류한 공화당 의원이 6명이 되면서 선출에 필요한 '매직넘버'가 216표로 내려간 덕에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당장, 하원은 오는 9일(현지 시간)부터 일련의 118대 하원 운영 규칙안에 대해 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원 법사위 내에 이른바 '연방정부 무기화 특별소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포함된다.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내 강경파가 요구한 특위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조

사 대상은 법무부와 FBI, 국토안보부 등이 거론됐으나 지금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 모든 범죄 수사로 확대된 상태라고 CNN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특별소위에 하원 정보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며, 민주당 주도로 18개월간 활동했던 '1.6의 사당 폭동 사태 조사 특위' 수준으로 활동 예산 및 직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은 또 법사위원장이 특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 수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헨리 바이든 의혹 조사와 관련한 소환 권한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10일에는 하원에서 중국과의 경제 경쟁 전략 관련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원과 달리 하원에는 무제한 토론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어 모든 안건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공화당의 방침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가결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공화당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미국 국제세금(IRS) 지원 예산을 무효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전략비축유 사용 제한, 이민정책 변경, 낙태 반대법안 등도 공화당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이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에서 부결될 수 있는 데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문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이들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군 병력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맞서 시위를 벌이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브라질판 대선 불복 의회 폭동

### 보우소나루 지지자 수백여명 경찰 저지 뚫고 대법원 등 난입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등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조우의 사태가 발생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군을 투입해 진압에 나서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8일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과 CNN 스페인어판·브라질 TV 글로벌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 관구에 있는 의회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의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넘은 뒤

경찰의 저지를 뚫고 문을 박살 낸 뒤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집기류를 내던지고 총격을 가해 건물 바닥을 파손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회 의회장 시설물을 못 쓰게 만들고, 의장석에 앉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노란색과 초록색 국기 색 옷을 맞춰 입은 시위대는 의회 건물 지붕에 올라가 브라질 군대의 쿼터라를 촉구하는 '개입'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플래카드를 펼치기도 했다.

시위대는 이어 인근에 있는 대통령궁과 대법원으로까지 물러가 창문을 깨뜨리는 등 일대를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이 같은 폭동 행위를 담은 일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의식불명 태국 공주

###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확인

의식불명 상태인 태국 '팟차라끼띠야파 나렌티라토파야와디'(44)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태국 왕실이 9일 밝혔다. 왕실은 "공주가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에 따른 심장 염증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의료진이 결론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왕실은 "공주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며 의료진이 지속해서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며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폐와 신장 기능을 도울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팟차라끼띠야파 공주의 상태와 관련된 왕실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 구체적인 원인은 처음 공개됐다.

마이코플라스마는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미생물로, 주로 폐렴, 관절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하 와짜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의 첫째 딸인 팟차라끼띠야파 공주는 지난달 14일 북동부 나콘 라차시마주에서 열리는 육군 주최 군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애완견과 훈련 중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공주는 방콕으로 이송돼 출라롱꼰기념병원에 입원 중이다. /연합뉴스



멕시코 대통령 영접 받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8일(현지시간)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정상은 이날부터 아틀란티스시에서 회의를 열고 이주·무역 및 에너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해리 왕자 자서전 '스페어' 영국 시끌

### 왕실 회의론 불쏘시개 평가

영국 해리 왕자가 자서전 '스페어(Spare)'를 통해 왕실 일가에 관한 폭로와 시사점 많은 개인사를 공개하면서 영국이 시끄럽다. 한때 왕위 서열 3위였던 핵심 인사가 속사정을 이렇게 드러낸 경우가 없던 데다가 자서전이 400쪽이 넘는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고 국왕과 왕세자 부부를 겨냥한 내용이 많아서다.

왕실에서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근간인 왕실을 뒤흔드는 해리 왕자 부부에 비판적인 태도가 감지되는가 하면, 왕실 회의론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현재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적지 않아 화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커졌다.

BBC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생 마거릿 공주,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왕자 등 다른 '스페어'들의 고뇌를 조명하기도 했다.

당장 논란이 된 지점은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5명을 사살했다는 고백이다. 참전 군인들이 보복 우려 등을 언급했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측은 전범이라고 비난했다.

책에는 윌리엄 왕세자(이하 윌리엄)가 해리 왕자(이하 해리)를 잡고 밀쳐서 바닥에 쓰러뜨려 상처를 입은 내용, 해리가 세인트폴 대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사원 결혼식을 상의했을 때 윌리엄은 본인인 찰스 3세가 한 곳이라 안 된다며 시골 교회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들턴 왕세자빈과 마릴의 갈등도 언급됐다.

두 형제가 찰스 3세에게 커밀라 왕비(이하 커밀라)와 결혼하지 말라고 빌었다는 내용, 해리 왕자가 17세에 말을 아주 좋아하던 나이 많은 여성과 펍 뒤의 들뜬에서 첫 경험을 했다는 내용, 아프간전에 참전해 탈레반 25명을 사살했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3층  
공정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